

에고그램을 통해 본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과의 관계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go-states and the Burnou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y Ego-gram

이화자* · 김경미** · 조지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한국은 생활과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도시화, 노인인구 증가, 독거노인층의 증가, 재난, 각종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소방업무가 확대되고 있다¹⁾. 인적재난사고 발생은 소방방재청이 개정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3년 대비 391,837명에서 2010년 366,911명으로 매년 평균 0.9%씩 감소하고는 있지만²⁾,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인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³⁾.

이러한 구급업무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금융위기로 재난에 대한 투자의 위축과 한 동안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구조조정차원에서 인력과 기구를 대폭 축소해 왔다⁴⁾. 이에 소방의 현실이 서비스임에도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 생산적 대응이 부족하며 장비의 노후, 전문성

의 부족 등으로 119 구급대원들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교대인력 또한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119구급대원은 큰 재난의 발생시 휴식 없이 연장 근무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실정은 피로와 체력 고갈로 이어져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의 저하와 이로 인해 부상하거나 순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⁵⁾.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구급업무는 기피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재진압 등의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교통사고의 가능성, 독극물이나 전염성 질환에의 노출, 음주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폭력으로 인한 신변의 위협,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음주자로부터의 욕설과 몸싸움,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부상가능성, 교통사고나 범죄 또는 고층에서의 추락 등으로 신체가 심하게 손상된 환자를 접해야 한다는 점과 법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며⁶⁾,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직무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소진의 결과를 가져와 전문직의 효율성을 낮게 한다^{7,8)}. 우리나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이와 최⁹⁾의 연구에서도 낮은 성취감은 소진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의 만족을 높이며 소진을 줄이고 전문직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119구급대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직무와 비슷한 작업조건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직무 만족은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직무 만족에

* 경북대학 간호과 조교수

** 동강대학 응급구조과 전임강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투고일(2011. 11. 8), 심사완료일(2011. 11. 21), 게재확정일(2011. 11. 28)

교신저자: 김경미(E-mail: miso3398@dkc.ac.kr)

차이를 보이는 요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적 측면이라는 점이다¹⁰⁾. 이러한 인간 개인의 행동과 심리적 이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성격 특성이다. 즉, 성격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 특유의 방식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¹¹⁾, 또한 성격은 개인의 전 일생을 통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개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면 변화가 가능하다¹²⁾. 그러므로 119구급대원이 자신의 성격유형을 인식하여 현장에서 소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격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에고그램이 있다. 에고그램은 5가지의 자아상태를 7가지의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패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기본 패턴,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고그램을 사용하였다¹³⁾. 구급대원의 성격특성과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전문직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119구급대원의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문직으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II. 대상과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을 파악하고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전체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을 작성한 대상자는 81명이다.

3. 연구도구

1) 성격특성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 각자의 성격에서 자아상태의 각 부분끼리의 관계와 외부에 방출하고 있는 심적에너지(psychological energy)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에고그램(egogram)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그래프의 유형은 자타긍정형인 원만 패턴(△형), 자기부정 타인긍정형인 헌신 패턴(N형), 자기긍정 타인부정형인 자기주장 패턴(역 N형), 자타부정형인 갈등 패턴(V형), 고뇌패턴(W형), 명랑패턴(M형), 완고패턴(우경사형)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설문지는 Dussay¹³⁾가 개발한 에고그램을 한국교류분석학회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ECL(egogram check list)를 이용하여 자아상태를 측정하였다. 자아상태는 비판적 어버이(Critical Parent: CP)자아, 양육적 어버이(Nurturing Parent: NP)자아, 어른(Adult: A)자아, 자유로운 어린이(Free Child: FC)자아, 순응적 어린이(Adapted Child: AC)자아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로 10문항씩 50문항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언제나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어 각 자아상태 척도의 점수는 10~50점까지 나올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준화 당시 ECL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1이다.

2) 소진

소진은 Pines¹⁴⁾ 등이 고안한 소진측정도구를 흥근표¹⁵⁾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소진 7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부정형 문항은 17개, 긍정형 문항은 4개(3, 6, 19, 21)이다. 각 문항에 대해 소진을 경험한 일이 '없다' 1점부터 '항상 경험한다' 7점까지의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어 측정치가 높을수록 소진경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소진 경험 정도는 이 척도에 의한 평균치로 나

타내므로 하위요인별로 1~7점까지 나올 수 있다. 홍¹⁵⁾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다.

〈표 1〉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

(N=81)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성별	남자	46	56.8
	여자	35	43.2
연령	20대	19	23.5
	30대	48	59.3
	40대	14	17.3
결혼상태	기혼	54	66.7
	미혼	27	33.3
종교	유	27	33.3
	무	54	66.7
교육수준	대졸	80	98.8
	대학원졸	1	1.2
직급	소방사	30	37.0
	소방교	24	29.6
	소방장이상	27	33.3
근무부서	구조대	25	30.9
	119안전센터	45	55.6
	행정업무	4	4.9
	종합상황실	7	8.6
근무경력	1년미만	9	11.1
	1~2년	5	6.2
	2~3년	14	17.3
	3~4년	7	8.6
	4~5년	5	6.2
자격종류	5년이상	41	50.6
	1급응급구조사	44	54.3
	2급응급구조사	22	27.2
	간호사	12	14.8
	기타	3	3.7
월 수입	200~250만원미만	24	29.6
	250~300만원미만	25	30.9
	300만원이상	32	39.5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G시의 구급대원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전자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설문지를 받은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구급대원 행정망을 통해서 G시에서 근무하는 전체 구급대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응답에 동의한 119 구급대원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구급대원 담당자의 전산망을 통해 회수되었다. 설문지는 전체구급대원들에게 배부하여 그 중 9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81부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상태와 소진은 하위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자아상태의 수준별 소진 정도는 t-검정을 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포는 남자가 56.8%이었고 여자가 43.2%였으며, 연령은 20대 23.5%, 30대가 59.3%, 40대 17.3%였다. 기혼자는 66.7%였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33.3%, 없는 사람은 66.7%였다. 교육수준은 모두 대졸 이상이었고, 직급은 소방사가 37.0%, 소방교가 29.6%, 소방장 이상이 33.3%였다. 현재 근무부서는 절반 이상(55.6%)이 119안전센터였고, 구조대가 30.9%였다. 근무경력은 5년 이상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54.3%, 2급 응급구조사는 27.2%, 간호사 14.8%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액은 200~250만원이 29.6%, 250~300만원이 30.9%, 300만원 이상이 39.5%로 나타났다.

2.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는 양육적 아버지(비판적 아버지) 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90±2.07), 비판적 아버지(CP) 자아(31.95±2.79), 순응적 어린이(AC) 자아(31.54±3.23), 어른(A) 자아(31.49±2.92), 자유로운 어린이(FC) 자아(30.60±3.80) 순이었다<표 2>. 또한 119구급대원의 에고그램 유형은 자기부정 타인긍정형인 헌신 패턴(N형)으로 나타났다<그림 1>.

3. 119 구급대원의 소진

119구급대원의 소진 정도는 3.76±0.63점으로 7점을 기준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소진의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소진(4.12±0.59)이 가장 높았고, 정신적 소진(3.78±0.73), 정서적 소진

III.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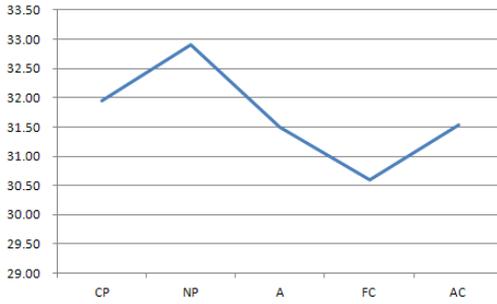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표 2> 119구급대원의 성격특성

(N=81)

	성격특성	M±SD	Median
CP	비판적 아버지 자아	31.95±2.79	32
NP	양육적 아버지 자아	32.90±2.07	33
A	어른자아	31.49±2.92	32
FC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30.60±3.80	30
AC	순응적 어린이 자아	31.54±3.23	32



〈그림 1〉 119 구급대원의 에고그램 유형

〈표 3〉 119구급대원의 소진

소진	M±SD
총 소진	3.76±0.63
신체적 소진	4.12±0.59
정신적 소진	3.78±0.73
정서적 소진	3.37±0.65

(3.37±0.65)순이었다(표 3).

4.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소진 정도 비교

각 자아상태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을 고기능 집단으로, 중위수 미만을 저기능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소진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소진의 경우에는 어른 자아에서만 차이를 나타냈는데, 어른 자아 고기능 집단(4.32±0.37)이 저기능 집단(3.88±0.71)보다 신체적 소진 정도가 높았다(p=.001). 정신적 소진은 자유로운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비판적 아버지 고기능 집단(3.98± 0.41), 양육적 아버지 고기능 집단(4.00±0.41), 어른 고기능 집단(4.01±0.51), 순응적 어린이 고기능 집단(4.05±0.29)이 각각 저기능 집단보다 정신적 소진 정도가 높았다. 정서적 소진도 정신적 소진과 비슷하게 양육적 아버지 고기능 집단(3.52±0.44), 어른

〈표 4〉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소진정도

자아상태 수준	N(%)	소진			총 소진	
		신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정서적 소진		
비판적 아버지	고	47(58.0)	4.23(.34)	3.98(.41)	3.47(.44)	3.90(.37)
	저	34(42.0)	3.97(.80)	3.49(.95)	3.24(.84)	3.57(.84)
	t(p)		1.746(.088)	2.873(.006)**	1.399(.168)	2.141(.038)*
양육적 아버지	고	50(61.7)	4.22(.38)	4.00(.41)	3.52(.44)	3.91(.38)
	저	31(38.3)	3.96(.81)	3.42(.96)	3.13(.84)	3.50(.86)
	t(p)		1.675(.102)	3.183(.003)**	2.371(.023)*	2.498(.017)*
어른	고	44(54.3)	4.32(.37)	4.01(.51)	3.56(.49)	3.97(.43)
	저	37(45.7)	3.88(.71)	3.49(.85)	3.15(.74)	3.51(.75)
	t(p)		3.457(.001)**	3.271(.002)**	2.808(.007)**	3.281(.002)**
자유로운 어린이	고	48(59.3)	4.24(.44)	3.93(.42)	3.44(.47)	3.87(.41)
	저	33(40.7)	3.96(.74)	3.56(.99)	3.27(.84)	3.60(.84)
	t(p)		1.906(.063)	2.013(.051)	1.090(.281)	1.757(.086)
순응적 어린이	고	47(58.0)	4.22(.37)	4.05(.29)	3.51(.38)	3.93(.33)
	저	34(42.0)	3.99(.79)	3.40(.96)	3.18(.87)	3.53(.85)
	t(p)		1.503(.140)	3.790(.001)**	2.036(.048)**	2.620(.012)*

*p<0.05, **p<0.01

고기능 집단(3.56±0.49), 순응적 어린이 고기능 집단(3.51±0.38)이 각각 저기능 집단보다 높았다. 총 소진 정도는 자유로운 어린이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각각 고기능 집단이 저기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

5.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간의 상관관계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신체적 소진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449, p=.000)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236, p=.034), 어린 자아(r=0.240, p=.031)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적 소진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302, p=.006) 및 순응적 어린이 자아(r=0.679, p=.000)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소진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480, p=.000)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상태와 총 소진간의 상관관계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247, p=0.027)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567, p=0.000)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판적 어머니 자아와 양육적 어머니 자아, 어린 자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119 구급대원의 자아유형중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한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는 0.8 미만이었으며,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73으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Tolerance(공차한계)와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 역시 없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신체적 소진에 자아상태가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7.700, p=.000), 이 모형의 설명력은 29.5%로 나타났다. 신체적 소진에는 양육적 어머니 자아(t=-3.226, p=.002)와 어린 자아(t=2.893, p=.005), 순응적 어린이 자아(t=4.217, p=.000)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영향력의 크기는 순응적 어린이 자아(β =.528), 양육적 어머니 자아(β =-.346), 어린 자아(β =.327)의 순이었다. 즉, 순응적 어린이 자아가 높을수록, 양육적 어머니 자아가 낮을수록, 어린 자아가 높을수록 신

<표 5>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의 상관관계

(N=81)

		성격특성				
		비판적 어머니	양육적 어머니	어른	자유로운 어린이	순응적 어린이
신체적 소진	r	.143	-.103	.240	.236	.449
	(p)	(.203)	(.358)	(.031)*	(.034)*	(.000)**
정신적 소진	r	.250	.193	.217	.302	.679
	(p)	(.024)*	(.084)	(.052)	(.006)**	(.000)**
정서적 소진	r	.065	-.036	.124	.153	.480
	(p)	(.566)	(.748)	(.269)	(.173)	(.000)**
총 소진	r	.165	.029	.204	.247	.567
	(p)	(.143)	(.801)	(.070)	(.027)*	(.000)**

* p<0.05, ** p<0.01, *** p<0.001

〈표 6〉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가 신체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N=81)

독립변수	B	S.E.	β	t(p)	Adj R ²	F
상수	3.429	.976		3.513(.001)**		
비판적 아버지	-.050	.029	-.234	-1.711(.091)		
양육적 아버지	-.099	.031	-.346	-3.226(.002)**	0.295	7.700***
어른	.065	.023	.327	2.893(.005)**		
자유로운 어린이	.014	.021	.090	.658(.513)		
순응적 어린이	.097	.023	.528	4.217(.000)***		

** p<0.01, *** p<0.001

〈표 7〉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가 정신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N=81)

독립변수	B	S.E.	β	t(p)	Adj R ²	F
상수	-.625	1.045		-.598(.552)		
비판적 아버지	-.043	.031	-.166	-1.388(.169)		
양육적 아버지	.003	.033	.009	.100(.921)	0.462	14.727***
어른	.016	.024	.068	.684(.496)		
자유로운 어린이	-.020	.023	-.104	-.875(.384)		
순응적 어린이	.183	.025	.813	7.427(.000)***		

*** p<0.001

〈표 8〉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가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N=81)

독립변수	B	S.E.	β	t(p)	Adj R ²	F
상수	2.409	1.075		2.242(.028)*		
비판적 아버지	-.061	.032	-.263	-1.906(.060)		
양육적 아버지	-.059	.034	-.190	-1.756(.083)	0.281	7.267***
어른	.029	.025	.134	1.178(.243)		
자유로운 어린이	-.014	.023	-.082	-.591(.556)		
순응적 어린이	.138	.025	.692	5.470(.000)***		

* p<0.05, *** p<0.001

체적 소진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다음으로 정신적 소진이나 정서적 소진에 자아상태가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은 둘 다 유의하였지만(정신적 소진: F=14.727, p=.000; 정서적 소진: F=7.267, p=.000) 자아유형 중 순응적 어린이 자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적 소진: t=7.427, p=.000; 정서적 소진: t=5.470, p=.000).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46.2%와 28.1%였으며, 두 경우 모두 순응적 어린이 자아상태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8).

자아상태가 총 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모형 역시 유의하였고(F=9.474, p=.000), 이 모형의 설명력은 34.9%였다. 119 구급대원의 총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유형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t=5.923, p=.000)만이 유의미하였다. 즉, 순응적 어

〈표 9〉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가 총 소진에 미치는 영향

(N=81)

독립변수	B	S.E.	β	t(p)	Adj R ²	F
상수	1,721	1,002		1,717(.090)		
비판적 아버지	-.053	.030	-.233	-1,753(.084)		
양육적 아버지	-.052	.031	-.171	-1,653(.102)	0.349	9.474***
어른	.039	.024	.181	1,636(.106)		
자유로운 어린이	-.007	.022	-.043	-.326(.745)		
순응적 어린이	.140	.024	.718	5,923(.000)***		

*** p < 0.01

린이 자아가 높을수록 총 소진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9).

IV. 고 찰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 두 변수의 상관관계, 자아상태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119 구급대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자아상태와 소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보건의료 계열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119 구급대원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육적 아버이 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90±2.07), 비판적 아버이 자아(31.95±2.79), 순응적 어린이 자아(31.54±3.23), 어른 자아(31.49±2.92),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30.60±3.80)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¹⁶⁾의 연구와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¹⁷⁾의 연구에서도 양육적 아버이 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양육적 아버이 자아는 중심선(25점)보다 높으면 모성적이고 온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정적이며 타인으로부터 원조요청을 받으면 거절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의 양육적 아버이 자아가 높은 성격특성은 타인중심, 자기 희생형으로 응급환자를 돌보고, 대민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성격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양육적 아버이 자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비판적 아버이 자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배적인 성격특성이다. 이것은 이상을 추구하고 양심적이며 책임감이 있고 권위적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직무활동,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능력과 자기주장이 분명한 점이 119구급대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19 구급대원의 총 소진은 3.76±0.63점이었다. 소진의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소진(4.12±0.59)이 가장 높았고, 정신적 소진(3.78±0.73), 정서적 소진(3.37±0.65)순이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¹⁷⁾의 연구나 재독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등¹⁸⁾의 연구에서도 하위영역 중 신체적 소진이 가장 높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한편, 낮은 자아개념과 자신과 업무 및 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정신적 소진과 정서적 소진의 측면이 낮게 나온 점을 미루어 볼 때, 119구급대원은 자신의 업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소진 정도를 비교한 결과, 비판적 아버이 자아는 정신적 소진과 총 소진에서, 양육적 아버이 자아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는 신체

적 소진을 제외한 모든 소진에서, 어른 자아는 모든 소진에서 자아상태 수준이 높은 경우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수준에 따라 소진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119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총 소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243, p=0.029$)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567, p=0.000$)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 중 119구급대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자아상태를 독립변수로,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 119 구급대원의 총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유형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¹⁷⁾의 연구에서도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순응적 어린이 자아는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결과와 일치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19 구급대원의 성격특성을 알고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한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119 구급대원의 소진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19 구급대원의 자아 상태는 양육적 아버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90 ± 2.07), 비판적 아버지자아(31.95 ± 2.79), 순응적 어린이 자아(31.54 ± 3.23), 어른 자아(31.49 ± 2.92), 자유로운 어린이자아(30.60 ± 3.80) 순이었다. 에고그램 유형은 자기부정 타인긍정형인 현실패턴(N형)으로 나타났다.
- 2) 119 구급대원의 총 소진은 3.76 ± 0.63 점이었다. 소진의 하위영역에서는 신체적 소진

(4.12 ± 0.59)이 가장 높았고, 정신적 소진(3.78 ± 0.73), 정서적 소진(3.37 ± 0.65)의 순이었다.

- 3) 자아상태 수준에 따른 소진 정도를 비교한 결과, 비판적 아버지 자아는 정신적 소진과 총 소진에서, 양육적 아버지 자아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는 신체적 소진을 제외한 모든 소진에서, 어른 자아는 모든 소진에서 자아상태 수준이 높은 경우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는 수준에 따라 소진 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119 구급대원의 자아상태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는 신체적 소진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449, p=.000$),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236, p=.034$), 어른 자아($r=0.240, p=.031$)와, 정신적 소진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302, p=.006$) 및 순응적 어린이 자아($r=0.679, p=.000$)와, 정서적 소진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480, p=.000$)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소진과 자아상태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r=0.247, p=0.027$)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r=0.567, p=0.000$)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5) 119 구급대원의 총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아상태는 순응적 어린이 자아로 나타났다. 신체적 소진의 경우에는 양육적 아버지 자아($t=-3.226, p=.002$)와 어른 자아($t=2.893, p=.005$), 순응적 어린이 자아($t=4.217, p=.000$)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가 높을수록, 양육적 아버지가 낮을수록, 어른 자아가 높을수록 신체적 소진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의 성격특성은 양육적 아버지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은 순응적 어린이자아인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였다. 또한 순응적 어린이

이자와 자유로운 어린이자이는 소진과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순응적 어린이 자아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의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였다. 또한 119구급대원의 에고그램 유형은 자기부정 타인긍정 헌신 패턴(N형)이다. N형의 패턴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온정이 있는 반면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삭이거나 기분전환을 쉽게 못하는 단점이 있어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구급대원의 소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19 구급대원의 이들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인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직무만족과 효율적인 업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는 G시에 해당하므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진행 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본 연구의 결과 성격특성에 따른 소진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므로, 성격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성격특성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기초로 한 119구급대원의 인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최병학. 공공 스포츠 센터의 조직구조와 조직 문화 및 조직 유효성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기도, 2006.
2. 소방방재청. 2010년 재난연감. 2010.
3. 황성오, 임경수.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장소생술. 서울:군자출판사; 2011.
4. 중앙일보. 2.21자, 5면. 2003.
5. 소방방재청. 구조, 구급 활동 실적 통계. 2007.
6. 임재만, 윤석정, 임관수, 강신갑, 최은숙, 서경희. 119구급대원의 법적책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9;13(1):87-96.
7. Greenglass ER., Burke RJ., Mooreass KA. Reaction to increased workload: effects on professional efficacy of nurses. Applied Psychology 2003;52(4):580-597.
8. 홍의정. 응급의료종사자의 소진 영향요인 : (부산, 경남지역 119구급대원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상남도, 2011.
9. 이인수, 최은숙. 소방대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응급구조학회지 2000;4:47-55.
10. 김희경, 지현순, 류은경, 전미경.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병원간호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및 소진비교. 임상간호연구 2005; 11(1):109-121.
11. 신유근. 조직행위론. 서울: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12. 이상우. 인간성격의 이해. 서울:중앙적성출판부; 1984.
13. Dussay JM. Ego Gram: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Grove Press, 1997.
14. Pines AM, Aronson E, Kafry D.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York, 1981.
15. 홍근표. 간호원의 소진경험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84.
16. 이숙. 임상간호사의 자아상태와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유형인식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2003;12(4):453-462.
 17. 이경미. 프리셉터 간호사의 성격특성에 따른 직무만족과 소진. 간호과학 2006;18(2):39-46.
 18. 김란, 김창숙, 김영재, 박인순, 박명희. 재독 한국인 간호사들의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도 및 소진과의 관계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3;9(2):186-198.

=Abstract =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go-states and the Burnout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by Ego-gram

Wha-Ja Lee* · Kyoung-Mi Kim** · Ji-Hyun Cho***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go-states of th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119 EMTs) and the burnout and help them grow as a profession.

Method : This is a descriptive study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1 EMTs in 119 fire station in G City.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burnout in 119 EMTs in accordance with ego-state.

Results : The highest score of 119 EMTs was the Nutrition Parent(NP) which showed 32.90 ± 2.07 . The second highest was of the Critical Parent(CP), 31.95 ± 2.79 . The Ego-gram profile of 119 EMTs was slope N type. The burnout was 78.90 ± 13.19 , the physical burnout was highest(28.86 ± 4.14) in the low rank territory. The ego state according to level, the comparison of the degree of burnout, Free Child(FC) all but the type of ego-states burnout of the high groups appeared to be much highe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ir ego-states and the burnout of 119 EMTs appeared to be related to the 'plus(+)' correlation for the Free Child(FC ; $r=0.243$, $p=0.029$) and the Adapted Child(AC ; $r=0.567$, $p=0.000$), and CP, NP and Adult(A) appeared to be unrelated to the correlation.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has the biggest effect on the burnout of 119 EMTs was the AC(0.717), which seems to have a measurable effect on the statistics($p < 0.01$).

Conclusion : Understanding the personality of 119 EMTs and its the application in the workforce will increase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for the fire station officials.

Key Words : Ego-gram, Ego-states, Burnout,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Dep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kang College

***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Kyoung-Mi Kim (E-mail: miso3398@dkc.ac.kr)